

리버데일 한의원

한 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461-4447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통증 중재 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 통증
(718) 224-1600
43-24220 Pl. Bayside, NY 11361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First American Landing

부동산 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 카메라 / 인터넷
전화 설치 / 수리
이종석 (사도요한)
(201) 336-2522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 파크 (100번 도로)
(914) 725-0747

맥 한의원

한 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 병 치료
224 E 204 St Bronx
(718) 563-1209

뉴욕 라이프보험

김 여경 (헤레나)
(203) 629-0266 (O)
각종 보험, 투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 310-6990 (C)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울 환 (Francisco)
영 화 (Julie)
엠피아어스테이트 빌딩 #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정일연 (스테판노) 자과

콜롬비아 자과 대학교 졸업
임플란트 (시립병원 앞)
(718) 426-4343, (주자은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 (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 / 법인 세무 보고
면 회사 설립 사업해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 961-4024 (2)

이준승 치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리사 휴대폰

국내 무제한, 한국 5시간
월 40\$ (세금 포함)
(718) 205-1200 Kim

뉴욕 정비 (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김래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 300 맨하탄 (212)
947-8382 (B) 뉴저지 (201)
592-5514 (H)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밴,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김점 공인 회계사

Young & Jull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 888-121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 353-7676
144-19 35th Ave Flushing, NY 11354

광고모집

제 1682호

2011.10. 2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마태오 21, -43)

주임 신부 : 남 시몬 (해근)

부주임 신부 : 이 안드레아 (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 (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 (본미사), 12시 30분 (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 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 봉성체 : 매일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일 둘째 토요일 (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연중 제27주일

ㄹ 입당송 (에스 4,17)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대영광송>

ㄹ 제1독서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1-7)

-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군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야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2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 확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 포도를 맺었다네.
- 3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 다오! 4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라 말이나? 내가 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랴 말이나?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 포도를 맺었느냐?
- 5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울타리를 건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6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 하고 김매기도 못 하게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 7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나?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80(79),9와 12.13-14.15-16.19-20(㉠ 이사 5,7ㄱ))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1.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2.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니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3.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4.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ㄹ 제2독서 (나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6-9)

형제 여러분, 6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8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9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요한 15,16)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ㄹ 복 음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3-43)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33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³⁴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³⁵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³⁶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³⁷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³⁸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³⁹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

⁴⁰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⁴¹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⁴²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⁴³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체송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이시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0/2 8시	이 윤형	한 성천	한 회자	방 경숙
11시	이 회양	김 종철	박 은영	이 종숙
10/9 8시	김 철	홍 승표	홍 명숙	김 미수
11시	최 일환	한 광희	한 소은	최 금연

복 사 : 윤 정훈 & 정 무원 이 다운 & 김 현건

봉헌자 : 김성호&최충규 가족 다음주 : 정순조&김일규 가족

헌금봉사 : 자비의 모후 Pr 다음주 : 정의의 거울 Pr

운전봉사 : 문 명남 다음주 : 김 영태

본당 배,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감사미사 : 박바오로[증환]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히스테파노[문호](연미사) : 성가대, 이줄리아 봉헌

윤요셉, 윤마리아(연미사) : 윤헬렌[기애] 가족봉헌

이명환(연미사) : 이안나[선미] 봉헌

서성화(연미사) : 양다니엘[명상] 가족봉헌

최마르꼬, 박마리아(연미사) : 최충규 가족봉헌

유재석, 홍대섭(연미사) : 최말다 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성가

입당 : 로사리오기도 드릴 때 (성가 271)

봉헌 : 형제에게 베푸는 것 (성가 41)

성제 : 오묘한 포도나무 (성가 460)

파견 :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성가 68)



교회 소식

(1) 로사리오 성월

10월은 묵주기도의 달입니다. 가을을 맞아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특별히 바쳐 주시기 바라며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시다. 저녁 기도 후 묵주기도의 성월(기도서 30-31P)를 바칩시다.

(2) 꾸르실료 소식

남성 제33차 꾸르실료 피정이 (10월20일(목)-23일(주일)) 뉴튼 분도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간사 정우충(제임스 917) 325-0779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성령세미나 소식

미동북부 성령세미나가 10월28일(금)-30일(주일) 까지 마리안 슈라인

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회장 최일환(니콜라오)
(347) 573-1417.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성모회 피정소식

성모회 피정이 “매력 있는 여자”란 주제로 다음주 9일(주일)
Ardsley에 있는Franciscan Retreat Center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하여 저녁 5시에 돌아옵니다.

(5) 성정마르꼬 야유회 소식

성정마르꼬 야유회가 다음주(주일) 8시 미사 후 (버스출발 9시30분)
배어 마운틴 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6) 구역회

올해는 신앙공부를 합니다. 모든 신자분들은 구역회에 참석합니다.
10월달 주제: “신자들의 영성(신심) 생활”

① 영성생활이란? ② 영성생활의 목적 ③ 영성생활과 기도

(7) 무료 건강검진

마운트 사이나이 심장 센터(Mount Sinai Medical Center Cardiac
Catherization Lap)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11월13일(주일) 아침 9시
부터 12시까지 실시합니다.

① 혈압 ② 당뇨병, 콜레스테롤 검사 ③ 심전도 검사 ④ 건강상담

(8) 한글학교 설문조사

주일학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본당 한글학교 설문조사지”를 발송
했습니다. 작성하신 후 동봉된 봉투로 반송해 주시거나 사무실로 10월
5일 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9) 본당 모임

● 동부 브롱스 구역회가 오늘(주일) 오후2시 김원식(펠릭스)

(646) 331-2056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주소: 43-39 171St Flushing (산수갑산 II) 뒤편.

● 대건회 가을소풍을 자녀들과 함께 23일(주일) 8시 미사 후
오차드 비치 로 갑니다. 대건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이번달(10월) 커피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브롱스 및 맨하탄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2,088.00

2차 헌금 : \$ 634.00 교육헌금 : \$ 2,407.65

교무금 : \$ 1,020.00

김문자(10) 윤기운(9-10) 양경식(7-8) 이우용(9-10)

로병건(10) 이상민(완납) 최일환(8-9) 윤인순(9)

손경섭(9) 이강민(7-10) 장건성(7-10)

신앙이란?

이제 6살 반이 되는 손자아이가 초등학교 일학년이 되면서 주일학교엘
다닌다. 주일학교엘 두 번째로 간 지난주일 손자에게 물었다. 오늘 선데
이 스쿨에서 가서 뭘 배웠어? 하고. 속으로 주의 기도를 배웠으면 이미
알고 있으니 신이 났었겠지? 하면서. 그랬더니 의외로 “오늘 신앙에 대
해서 배웠어” 하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할머니 신앙이 뭔지 알아? 하고
나에게 묻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고 망설이는데 손자
가 이렇게 말한다. “신앙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 것이 신
앙이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만 뒤로 넘어갈듯이 깜짝 놀랐다. 그
러면서 신앙이란 바로 그것이구나 하면서 무슨 화두를 깨닫는 느낌이 들
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초등학교 일학년인 손자처럼 신앙
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 전달해보
지도 못했던 것 같다. 이제까지 신앙에 대해서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얼마나 떠들어 댔는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
왔는가? 그런데 정작 신앙에 대한 초점은 빼고 변두리에서만 맴돌고 있
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이지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아주신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데 이제까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신앙
인이라고 하면서도 온갖 근심걱정을 다 하고...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
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등등을 믿는 것
이 신앙이고 그러면서 주님의 행적, 말씀을 이 작은 머리로 해석을 하려
고 애쓰고...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
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그런 삶은 바로 예수님께
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돌보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이 바로 하느님께
서 자기네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을 돌보아주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
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을 어떻게 사랑
하시는지 잘 몰랐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
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인간을 돌보아주시심을 주님이신 예수님께
서 직접 보여 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
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제 초등학교 일학년인 꼬마 손자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데 뭘 더 바
랄까? 내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근심걱정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 몽은